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4월 21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21-24절

설교제목 :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오늘은 구약의 율법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5: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는 문자적으로 ‘이전 시대로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본래적인’, ‘근본적인’이란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따라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모세 율법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이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율법임을 보여줍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6계명입니다. 출20:13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출20:13에서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대체로 ‘불법적인 살인’을 일컬을 때 사용됩니다. 즉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입니다. 따라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며,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을 말합니다. 사실, 6계명은 모든 종류의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출22:2) 하나님께서는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을 죽었다면 정당방위로 허용하십니다. 여기서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살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라그’입니다. 즉 ‘하라그’는 정당방위의 살인,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살인, 업무상의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정당성이 부여된 살해, 가령 정당방위나, 전쟁의 상황 등을 빼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살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창9:6) 살인은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22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6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하는 자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르기조메노스’는 일시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뒤모스’와 달리 주로 악의적 감정을 품은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여진 분노는 표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선과 표정과 행동과 언어로 표출되어집니다. 표출되어지면 마치 용암이 터지듯 터집니다. 따라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표현합니다. ‘라가’는 히브리 욕입니다. 그 뜻은 ‘머리가 텅빈’, ‘멍청이’, ‘바보천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보면, 둘대가리 정도가 됩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란 문자적으로 ‘우매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놈이란 의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이란 뜻이 강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매우 심한 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새언약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언어 행위와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모두가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6계명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했다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막9:42) 한마디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인격모독을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본 6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의 강도가 점점 더해집니다. **마5:22**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심판’ 즉 ‘크리시스’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심리하는 지방법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회’ 즉 ‘쉬네드리온’은 중요한 사건만을 심리하는 ‘중앙최고법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옥이라 함은 종말의 지옥 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란 인격모독의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행위는 자신이 불신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요일3:15)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진 증거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그가 새 생명의 존재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5:23-24에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회개보다 실제적인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회개는 잘못된 상대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6계명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타인과 그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피흘리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 자체는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멧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경시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언약적 관점에서 6계명의 실천은 먼저 양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6계명의 실천은 매우 작은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6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6계명은 매우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언약의 백성으로 6계명의 실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구약의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차흐’와 ‘하라그’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새언약적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새 언약적 관점에서 6계명의 실천은 먼저 양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6계명의 실천은 매우 작은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6계명은 매우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6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